

◆ 북미

- 美 노인계층, 생명보험 해약보다는 유동화가 필요
- 美 정의협회(Ass. of Justice), Allstate 최악의 보험사로 선정

◆ 유럽

- 영국 온라인 보험사, PPI보험 불완전판매 방지 규정 실효성 불투명

◆ 일본

- 대형 손보사, 자배책 보험료 대폭 인하로 1분기 영업실적 크게 하락
- 미츠이스미토모은행 신형 변액연금 판매 개시

◆ 중국

- LIG보험 중국 자회사 설립, 중국 보험업계를 놀라게 하다
- 중국 보험회사 87% 이상이 지불능력 충족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美 노인계층, 생명보험 해약보다는 유동화가 필요

- 미국 노년층이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는 보험료납입액이 부담스럽다던 지, 더 이상 보험가입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약을 한다고 응답했으나, 이는 노년층 보험계약자들이 해약을 하지 않으면서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옵션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J.G Wentworth Settlement(보험증권 유동화 전문업체)의 스캇윌콧 CEO가 지적함.
- Wentworth Settlement는 63세의 여성과 1997년에 실제로 거래하였던 보험금 25만달러의 사망보험 유동화를 예로 들어 유동화의 필요성을 제시
 - 월납보험료는 113달러로서 10년 동안 납입해 왔으며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었으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한 달에 700달러의 의료비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하게 되자 저축액으로서는 비용충당에 부족함을 인식하고 J.G Wentworth Settlement와 거래를 통해 일시금으로 45,000달러를 받음.
 - 그러나 보험증권 유동화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경우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해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음.
- 美보험계리사협회와 LIMRA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망보험 해약률은 대략 9.5% 수준인데, 11년차 이상 유지해온 노년층의 사망보험계약 해약률은 두 배에 해당하는 20%에 달하며, 유니버설 사망보험의 경우 5%가 해약되는데 반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다섯 배인 24%가 보험계약 5년 안에 해약을 한다고 발표함.
- 이러한 문제는 노년층에게 큰 재정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노년층은 해약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해볼 것을 권하고 있음.
 - 먼저, 보험사와 연락하여 보험금에 대해 알아볼 것. 둘째, 믿을 수 있는 보험증권 유동화 업체를 조사하여 볼 것. 셋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보험계약 판매

후 부가되는 세금을 계산해 볼 것. 넷째, 보험계약을 구매한 보험사에 되팔지 아니면 유동화 업체를 통해 판매할지를 결정할 것. 다섯째, 이미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고 있다면 효력 상실로부터 부활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해 볼 것. (Insurance News Net Journal 7/10)

□ **美 정의협회(Ass. of Justice), Allstate 최악의 보험사로 선정**

- 미국의 유명한 Allstate 보험사가 최악의 보험사로 평가됨. 미 정의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Allstate는 1990년대 중반부터 매킨지컨설팅사에 의뢰하여 조직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낮은 가격의 보험금을 책정 받게 함.
- 일리노이주에 기반을 둔 Allstate는 현재 개인손해배상 변호사의 타겟이 되어 향후 막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llstate의 홍보담당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는 어떠한 변호사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가 없는 자료로서 근거없이 십년간 가까이 떠돌던 소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
- 소송변호사들과 개인손해배상 변호사들이 Allstate를 탐탁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뒤집어 볼 때 보험계약자들은 Allstate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많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매년 신계약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함. 한편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는 언제든지 옆에 서있겠다는 명성을 힘들게 쌓아올렸는데 이를 헛되이 하지는 않았다고 밝힘.
- 한편, 본보고서에 따르면 나머지 9개의 최악의 보험사를 함께 명시하여 발표했는데 그 중 우리에게 익숙한 보험사는 다음과 같음.
 - 최악 3위 AIG: 2006년 소송을 피하기 위해 16억 달러를 지급함.
 - 최악 4위 State Farm: 2007년 4월에 발생한 3000건 이상의 허리케인 보상금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함.
 - 최악 10위 Liberty Mutual: Allstate나 State Farm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전술을 운용하기 위해 매킨지컨설팅사에게 컨설팅을 의뢰(Business Journal 7/9)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영국 온라인 보험사, PPI보험 불완전판매 방지 규정 실효성 불투명

- 영국의 독립 판매대리점인 Simon Burgess에 따르면, FSA의 새로운 규제인 TCF(Treating Customers Fairly)*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PPI(Payment Protection Insurance)의 불완전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TCF(Treating Customers Fairly)는 금융회사가 비즈니스 중심에 고객을 위치시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자 FSA가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투자자 보호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것임.

- 이는 2008년 1월 FSA가 ICOB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장형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함에 있어 구두 설명을 명확히 하였는가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정을 소개하는 것임.
 - 또한, 상품판매에 앞서 고객의 클레임 자격이 없는 보장부분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하며, 상품 가격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는지 등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 PPI 상품의 계약 취소기간과 관련해서는 기존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하였다고 덧붙임.
-
- Burgess는 보장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12개 온라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임의 추출방식의 확인 결과, 판매과정에 있어 FSA의 최근 규제를 따르고 있는 회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함.
 - 현재 보장형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해당상품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동시에 고객들이 관련 목록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등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구매가 허용되지 않는 체제임.
-
- FSA의 본 규제는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에 대한 높은 불만의 소리와 보상체계 개선에 관한 배출구 역할로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PI 보험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보험회사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고객이 보장형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만요인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고객신뢰 부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함.

(Insurance Times, 7/8)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대형 손보사, 자배책 보험료 대폭 인하로 1분기 영업실적 크게 하락

- 일본에서 영업 중인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들의 2008년 1분기(6월말) 영업실적이 집계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입보험료는 4월부터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의 20% 인하에 영향을 받아 전사에서도 감소하였음.
- 다만,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할 경우 미츠이스미토모해상과 아이오이손해보험(Aioi Insurance)을 제외한 4개사의 수입보험료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배책보험은 제2분기 이후에도 동일한 정도의 수입보험료 감소폭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No Loss No Profit' 원칙으로 손익에서 마이너스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손보업계는 전망하였음.
- 자배책보험을 제외하고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회사는 도쿄해상니치도(東京海上日動)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니혼코아손해보험, 닛세이도화손해보험이며, 가장 많이 증가한 닛세이도화는 모회사의 니혼(日本)생명보험의 영업직원을 통한 판매가 영업실적에 크게 기여하였음.
- 수입보험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인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재팬과 닛세이도화의 2개사에서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재팬은 2월부터 판매한 자동차보험의 신상품인 「ONE Step」의 호조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어 앞으로도 좋은 실적이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다만, 이들 2사 이외에는 신차판매의 침체 등 시장 환경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고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신상품 「GK 자동차보험」을 7월부터 판매하는 등 신상품 투입으로 영업실적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음.

□ 미츠이스미토모은행 신형 변액연금 판매 개시

-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은 10일 스미토모생명보험과 하트포트생명이 신상품으로 개발한 변액연금의 취급을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 스미토모생명의 신상품은 계약내용의 선택사항을 다양하게 구비한 것이 특징이며, 하트포트생명의 신상품은 개호보장을 부가하여 보장성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보험상품으로 방카슈랑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입장임.
- 스미토모생명의 신 변액연금은 계약 시 보험료 납입 후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거치 기간 이외의 기간에 자산운용 환경이 악화되어도 최저한 연금액을 보장하는 「최저 보증」의 수준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치 기간은 7년이나 10년, 최저 보장은 100% 또는 95%를 선택할 수 있어 선택내용에 따라 펀드 운영 수수료가 차이남.
 - 펀드 운영 중의 수수료는 리스크가 낮은 거치기간 7년, 최저 보장 100%의 경우 계약 수수료가 운용자산에 연간 2.25%로 가장 비싸며, 반대로 거치 기간 10년에 최저 보장 95% 계약의 경우 운용자산의 1.25%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함.
- 스미토모생명은 계약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 변액연금은 드물지만 가입 목적과 요구에 맞는 계약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장점이 큰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음.
 - 하트포트생명의 변액연금은 계약자의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받는 연금액이 상승하는 「롤업 형」의 변액연금에 개호보장을 특약으로서 붙였음.
 - 최소 계약 1년 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계약 3년 경과 후에 요양간호 단계의 「4이상」이 인정되면 추가적으로 개호연금도 지급됨.
- 하트포트생명에 의하면 롤업 형의 변액연금에 개호보장을 붙인 상품은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덧붙임.

(FujiSankei Busines I 7/11)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LIG보험 중국 자회사 설립, 중국 보험업계를 놀라게 하다

- 최근 중국에서는 손보사마다 기존 분·지점을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한창이며, 중국 보감위에 외자사의 자회사 설립신청이 몰리는 등 업계에서는 유명 글로벌 회사 위주로 순번이 나돌고 있었음.
 - 미국의 AIU, 독일의 알리안츠, 일본동경해상 등이 우선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은 오래 전부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함.
- 하지만 보감위의 첫 선택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이들 글로벌 기업이 아닌 한국의 LIG보험이었으며, 외자 손보사로써 처음으로 장쑤성(江蘇省) 난징(南京)에 100% 독자회사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전함.
 - 외자손보사가 분·지점이 아닌 자회사로 중국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중국 국내 보험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에 대한 자주권도 분·지점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됨을 의미함.
- LIG가 자회사 영업허가증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언론으로부터 새삼 주목 받는 이유는 자회사 허가증을 받기 위해 4년 이상을 기다려온 AIU, 알리안츠 등 유명 외자사와는 달리 그 동안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던 한국의 LIG가 신청 1년 만에 전격적으로 허가증을 취득했다는 사실 때문임.
 - 특히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외자보험회사의 중국진출 과정은 대표처→분지점→자회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시간 공을 들이는 데 반해, LIG보험은 대표처에서 곧바로 자회사로 승격됐다는 점임.
- 한편, LIG가 난징에 본부를 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난징지역 주위에 LG그룹 산하 10여 개 기업이 분포돼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증권망, 7/11)

□ 중국 보험회사 87% 이상이 지불능력 충족

- 중국 보감위 주석 비서인 원리(袁力)에 따르면, 금년 1/4분기말 현재 중국 내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보험회사 중 약 87%가 지불능력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형 보험회사의 지불능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부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수입 보험료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지불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전함.
- 이에 보감위는 지불능력 충족을 위한 자본금 확충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보감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보험회사 지불능력 관리규정>은 지난 2003년 이후부터 시행된 <보험회사 지불능력한도 및 관리감독지표 규정>에 비해 지불능력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 것임.
- 이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감위의 지불능력 관리책임을 명확화 하는 한편,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분·지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한편, 보감위의 지불능력 관리체계가 확고해짐에 따라 감독지표의 예고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보험회사 지불능력 관리규정에 관한 신규 규정에는 감독관리 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새로운 규정에는 최저자본과 실수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지불능력 30%, 70% 등에 대한 규제 조치가 삭제되는 대신 100%에 미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감독기관의 강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증권시보, 7/11)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7.4(금)	08.7.11(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6.05	6.15	0.10
	美 10년국채	4.03	3.97	4.54	0.57
	英 10년국채	4.51	4.96	4.91	-0.05
	日 10년국채	1.51	1.65	1.60	-0.05
주가	韓 KOSPI	1,897.13	1,577.94	1,567.51	-10.43
	韓 KOSDAQ	704.23	538.3	542.96	0.87%
	美 DJIA	13,264.82	11,288.54	11,100.54	-1.67%
	美 Nasdaq	2,652.28	2,245.38	2,239.08	-0.28%
	英 FTSE100	6,456.90	5,412.80	5,261.60	-2.79%
	獨 DAX30	8,067.32	6,272.21	6,153.30	-1.90%
	佛 CAC40	5,614.08	4,266.00	4,100.64	-3.88%
	日 Nikkei225	15,307.78	13,237.89	13,039.69	-1.50%
	中 상해종합	5,261.56	2,669.89	2,856.63	6.99%
	대만 가권	8,506.28	7,228.41	7,244.76	0.23%
	홍콩 항셱	27,812.65	21,423.82	22,184.55	3.55%
환율	원/달러	938.2	1,050.30	1,002.80	-47.50
	원/100엔	833.33	972.22	933.94	-38.28
	엔/달러	112.58	106.65	105.94	-0.71
	달러/유로	1.4722	1.5689	1.5915	0.02
	위안/달러	7.3041	6.8510	6.8340	-0.02